

‘被’구문의 문법화 연구*

金仁順**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被’구문의 역사적 변천과 ‘被’의 피동표지화
3. ‘被’구문의 문법화 기제
 - 3.1 의미적 기제
 - 3.2 통사적 기제
 - 3.3 음운적 기제
4. 맺는 말

1. 들어가는 말

‘被’구문은 현대중국어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어의 통시적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피동표현 중의 하나이다. ‘被’구문은 ‘被’ 뒤에 행위주(Agent) NP가 출현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크게 장거리 被구문(long passive)과 단거리 被구문(short passive)으로 나뉜다. 형식문법으로 ‘被’구문을 분석한 초기 논문들은 장거리 被구문의 행위주 삭제를 통해 단거리 被구문이 생성된다고 본다(Hashimoto 1987). 하지만 단순히 행위주 삭제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어의 장거리 被구문과 단거리 被구문을 구분할 수 없다.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

* 본 논문은 2010년도 BK21 고려대학교 중일언어문화교육연구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高麗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博士課程.

는 통시적으로 고찰해 봤을 때, 단거리 被구문의 출현시기가 장거리 被구문의 출현시기보다 훨씬 이르기 때문이다(王力 1980/2002, Peyraube 1989, Wei 1994, 蔣紹愚 2005, Huang 2009 등). 실제로 현대중국어의 전형적인 장거리 被구문 형식인 'NP₁+被+NP₂+VP'¹⁾는 漢나라 말기에 이르러서야 출현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행위주를 취하는 '被'구문은 엄격히 구분한다면 戰國시대 말기부터 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²⁾ 각각의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蔣紹愚 2005:236).

- (1) 萬乘之國，被圍於趙。(戰國策·齊策)
萬乘의 대국이 趙나라에 포위당했다.
- (2) 五月二十日，臣被尙書召問。(蔡邕·被收時表)
오월 이십일, 신은 상서에 의해 소환되었습니다.

예문 (1)을 살펴보면 戰國시대 말기에는 '被+V'라는 단거리 被구문의 형식 뒤에 전치사구인 '於+행위주(NP₂)'가 부가되어 장거리 被구문의 기능을 하고 있다. 예문 (1)과 (2)는 '被'구문을 연구하는 기존 논문들에서 거의 대부분 언급되고 있을 만큼 통시적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 두 예문을 기준으로 하여 '被'의 문법화(Grammaticalization)가 크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被'는 예문(1)과 같은 戰國시대 말부터 예문(2)와 같은 漢나라 말에 이르는 동안 동사라는 내용어(full word)에서 피동표지(Passive Marker)라는 기능어(functional word)로의 대변혁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의 주축이 바로 행위주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동사에 후행하는 성분인 행위주가 동사에 선행하는 성분으로 바뀌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被'는 'NP₂+VP'를 취하는 기능어로 변모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동사에 후행하는 성분인 행위주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 동사에 선행하는 성분으로 바뀌게 되었

1) 필자는 논지 전개상의 편리를 위해 장거리 被구문은 'NP₁+被+NP₂+VP'로, 단거리 被구문은 'NP₁+被+VP'로 표기하도록 하겠다.

2) '於'와 관련해 논쟁이 되는 부분은 2장에서 다시 논하도록 하겠다. 자세한 내용은 2장을 참고하십시오.

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필자는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지를 전개해 나가려고 한다. 먼저 2장에서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被'구문의 문법화에 따른 '被'의 품사분류를 王力(1980/2002), 蔣紹愚(2005) 등 기존 학자들의 견해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3장에서는 '被'구문의 문법화 기제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3.1과 3.2에서 의미적 기제와 통사적 기제인 은유(Metaphor)와 유추(Analogy)를 각각 살펴볼 것이고 동시에 이들의 문제점도 밝히고자 한다. 3.3에서는 '被'구문의 통사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실질적인 기제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被'구문에서 동사 V는 이음절화(disyllabicity)에 의해 동사구 VP로 바뀌게 되고, 이로 인해 VP는 동사에 선행하는 NP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장거리 被구문의 행위주가 출현하는 동일한 위치에서 행위주 출현이 촉발되며, '被'는 'NP₂+VP'라는 IP를 취하는 기능어로 문법화되는 것이다. 필자는 아래의 분석을 통해 이러한 논리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2. '被'구문의 역사적 변천과 '被'의 피동표지화

중국어에서 피동을 나타내는 어휘로 가장 초기에 출현한 것을 '於'라고 본다면, 중국어 피동문의 출현 시기는 金文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³⁾ 그러나 '被'의 출현은 先秦시기 피동형식인 '於', '爲', '見'에 비해 많이 늦은 편이었다. '被'의 가장 오래된 용법은 '이불'을 의미하는 명사이며,⁴⁾ 오늘날까지 그 명사적 용법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3) 叔勉錫貝於王嬭。(叔勉方彝)

叔勉은 왕의 침에게서 조개를 하사받았다. (Peyraube 1989:336)

4) 《說文解字·衣部》：“被，寢衣，長一身有半，從衣皮聲(被는 잠옷으로, 길이가 몸의 반이고, 부수는 衣, 음은 皮이다).”(張洪明 2005:193)

기원전 770년 전에 ‘被’는 ‘덮다(覆蓋)’라는 의미의 동사로 사용되기 시작한다. ‘덮다’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이불’이라는 명사에서 파생된 것으로 본다(王力 1980/2002:428, Peyraube 1989:347-348, 張洪明 2005:193 등).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張洪明 2005:193).

- (3) a. 天被爾祿。(詩經·大雅·既醉)
하늘이 복록을 덮어준다.
b. 阜蘭被徑兮。(楚辭·宋玉·招魂)
향기로운 난초가 길을 덮었다.
c. 澤被生民。(荀子·臣道)
은혜가 백성을 덮다.

대략 기원전 250년 戰國시대 말기에 ‘被’는 ‘덮다’의 의미에서 ‘당하다(遭受)’의 피동의미로 변천된다. ‘被’는 ‘덮다’의 의미일 경우 그 목적어로 ‘NP’를 취하지만, ‘당하다’의 의미일 경우 그 목적어로 ‘V’를 취하게 된다. 상고중국어⁵⁾에서 V와 N의 경계는 불분명해 보인다. P. A. Bennett(1981:74-76) 역시 아래 (4-b)의 ‘攻’이 명사나 동사로 분석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출현한 (4-c)를 살펴보면 ‘被’ 뒤에 출현한 성분이 동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4-c)에서 ‘圍’ 뒤에 전치사구 ‘於趙’가 출현하는데, 뒤에 전치사구를 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동사이기 때문이다. 예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4) a. 申生孝而被殃。(楚辭·東方·七策)
申生은 효성스러웠지만 화를 당하였다.
b. 國一日被攻, 雖欲事秦, 不可得也。(戰國策·齊策)
국가가 하루아침에 공격을 당하니 비록 秦을 섬기고자 하나 할 수 없다.
c. 萬乘之國, 被圍於趙。(戰國策·齊策)
萬乘의 대국이 趙나라에 포위당했다. (예문(1) 재인용)

따라서 ‘被’는 ‘V’를 취하여 ‘被+V’를 형성하게 된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여

5) 본고에서 사용하는 중국 언어학의 시대구분은 Peyraube(1989)를 따른 것이다.

전히 ‘被’ 뒤에 행위주가 출현하지 않았고, 행위주를 표현해야 할 경우 (4-c)와 같이 전치사구 ‘於+NP2’가 사용되었다.

‘於+NP2’에서 ‘於’는 장소(Locative), 여격(Dative), 비교(Comparative), 행위주(Agent)와 같은 성분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예문 (4-c)에서 ‘於+趙’는 술목구조인 ‘被圍’의 보어이지, ‘圍’의 행위주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蔣紹愚 2005:237).⁶⁾ ‘於’가 실제로 행위주를 나타내는 전치사인지 여부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는 중국어 피동문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을 것이다. ‘於’가 행위주를 취하는 형식은 상고중국어에서 자주 눈에 띄는 현상이었다.⁷⁾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王力 1980/2002:419).

- (5) a. 禦人以口給, 屢憎於人。(論語·公治長)
남을 대할 때 말재주만 부리면, 남에게 자주 미움을 사게 된다.
- b. 勞心者治人, 勞力者治於人。(孟子·滕文公上)
마음을 쓰는 자는 타인을 다스리고, 힘을 쓰는 자는 타인에게 다스림을 받게 된다.
- c. 吾再逐於魯, 伐樹於宋, 削迹於衛, 窮於商周, 圍於陳蔡之間。(莊子·山木)
나는 두 번이나 魯나라에 의해 쫓겨났고, 宋나라에서는 나무(설교하던 나무) 베임을 당하였으며, 衛나라에서 쫓겨났고, 商나라와 周나라에서는 궁지에 몰렸고, 陳과 蔡 두 나라 사이에서는 포위를 당했습니다.

王力(1980/2002:418)은 (5)의 예문들을 통해 행위주인 사람이나 장소를 말할 때, 타동사(外動詞)를 ‘於’자의 앞에 둔다고 하였다. (5-a)와 (5-b)는 ‘於’자가 행위주인 사람을 나타내는 예이고, (5-c)는 ‘於’자가 행위주인 장소를 나

6) 蔣紹愚(2005)는 후에 蔣紹愚·曹廣順(2005:382)에서 ‘被圍於趙’의 의미는 ‘在趙地被圍(趙나라 땅에서 포위당하다)’가 아니라 ‘被趙所圍(趙나라에 의해 포위당하다)’이며, 전치사 ‘於’가 나타내는 것은 ‘被圍’의 장소가 아닌 동사 ‘圍’의 행위주로 ‘被’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7) ‘V+於+행위주’는 후기 상고중국어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형식이다. 戰國시대 초기 문헌인 《左傳》, 《國語》, 《論語》, 그리고 《墨子》의 코퍼스에서 Tang&Zhou(1985)에 의해 발견된 105개의 피동 중 ‘V+於+행위주’ 형식은 52개이다. 《孟子》, 《荀子》, 《莊子》, 《韓非子》, 그리고 《戰國策》에서 추출한 293개의 피동 중 ‘V+於+행위주’ 형식은 169개이다. (Peyraube 1989:337)

타내는 예이다.⁸⁾ 그는 고대 사람들이 행위주인 사람과 행위주인 장소를 동일한 유형으로 보고, 동일한 구조형식을 사용하였다고 본다. 본래 타동사는 기본적으로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만,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출현하지 않고 전치사 ‘於’가 출현하기 때문에 행위는 주어에 미치는 것이다. Peyraube(1989:338)는 후기 상고중국어에서 능동과 피동의 차이가 동사 자체에 의해 생길 수 없고 동사에 연결된 불변화사(particle)에 의해 생긴다고 주장한 M. Hashimoto (1987)의 주장에 동의하였다. 즉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於’는 행위주와 피동 의미를 동시에 나타내는 전치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先秦시기의 중요한 피동형식인 ‘爲’나 ‘見’ 역시 ‘於+NP₂’를 이용해 행위주를 표현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6) a. 身死爲僇於天下。(墨子·法儀)

죽은 후에도 세상에 의해 모욕을 당했다. (Peyraube 1989:342)

b. 吾常見笑於大方之家。(莊子·秋水)

나는 항상 큰 도를 터득한 사람들로 부터 비웃음을 당하였다.

(Huang 2009:136)

Huang(2009:136-137)은 예문 (6-b)와 (4-c)가 현대중국어 ‘被’구문, 예를 들어 “我被打了(나는 맞았다)”와 다른 점은 역사적으로 행위주는 ‘於+NP₂’라는 전치사구의 형식으로 동사에 후행하여 출현하였지만, 현대중국어 단거리 被구문에서는 그러한 형식이 완전히 사라진데 있다고 보았다. 현대중국어 단거리 被구문은 先秦시기 피동문에서 직접적으로 계승되었으며, 동사에 후행하는 ‘於+NP₂’가 사라진 이유는 언어의 독립적인 역사적 발전 때문이다. 즉 동사에

8) 唐鈺明(2002a:260-261)은 본문 (5-c)의 예에서 “吾再逐於魯”의 ‘於’만이 행위주를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王力이 너무 포괄적으로 ‘행위주인 장소’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전부 피동식에 포함시켰다고 하였다. 그는 ‘於’자가 행위주를 나타내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후기에 생성된 피동식으로 전환해 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逐於魯”는 “爲魯所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따라서 “吾再逐於魯”는 피동식인 것이다. 필자 역시 唐鈺明의 주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본고에서는 “吾再逐於魯”의 ‘於魯’만이 행위주를 나타내는 예로 보고자 한다.

후행하는 위치에 출현하는 부가어인 전치사구가 소멸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於+NP₂’에 대한 학자들의 분석 및 통시적 고찰을 통해 ‘被’구문에서 ‘於+NP₂’는 역사적으로 ‘被+V’ 뒤에서 행위주를 나타내었고 후에 소멸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被’ 바로 뒤에 행위주를 취하는 ‘被’구문은 漢나라 말기에 이르러서야 출현하지만 그 수는 미미할 뿐이었다. 그러나 南北朝에 이르러 증가하기 시작하여 隋·唐시기에 이르면 그 수가 지배적이게 된다. 唐나라에 이르러, ‘被’는 ‘見’과 ‘爲’의 기능을 차례로 모두 대체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시기부터 행위주가 출현하는 ‘被’구문이 행위주가 출현하지 않은 ‘被’구문보다 많아져 현대 중국어 ‘被’구문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⁹⁾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蔣紹愚 2005:236).

- (7) a. 五月二十日, 臣被尚書召問。(蔡邕·被收時表)
오월 이십일, 신은 상서에 의해 소환되었습니다. (예문(2) 재인용)
- b. 禰衡被魏武謫爲鼓吏。(世說新語·言語)
예형이 위 무제의 미움을 받아 鼓吏로 폄적되었다.
- c. 亮子被蘇峻害。(世說新語·方正)
유량의 아들이 소준에게 살해당했다.

‘被’는 행위주 NP와 동사구 VP를 취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행위주 NP와

9) 행위주를 취하는 ‘被’구문이 탄생한 후에, 시대의 발전에 따라 신속한 발전을 이루게 된다. 袁寅(1989)의 통계는 다음과 같다.

	피동문 수	被ZV	%
世說新語	9	2	22%
百喻經	6	2	33%
文選	14	3	21%
敦煌變文	94	46	49%
祖堂集	76	59	78%

唐鈺明(1988)의 통계에 따르면, 《朱子語類》에서 ‘被’구문은 457개가 출현하는데, 행위주를 취하는 ‘被’구문은 399문장에 달하여 87%에 이른다. 이를 통해, ‘被’구문의 주요형식을 이미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蔣紹愚 2005:239).

동사구 VP는 하나의 절 IP를 이루게 되어 '被'를 내용어에서 피동표지인 기능어의 역할로 변화시킨다.¹⁰⁾

'被'는 이상과 같은 문법화를 통해 명사에서 동사를 거쳐 피동표지로 변화되었다. 그렇다면, '被'구문의 이러한 문법화를 가능하게 한 원인이 무엇인지 고민해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그 원인이 주로 문법화의 의미적 기제와 통사적 기제인 은유와 유추에 의해 설명되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被'구문의 통사적 변화의 기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지만 그런 변화의 원인을 제공해 줄 수는 없다. 우리는 아래 3장에서 '被'구문의 문법화 기제들에 대해 살펴보고, '被'구문의 문법화에 대한 좀 더 나은 해석을 찾아보고자 한다.

3. '被'구문의 문법화 기제

3.1 의미적 기제

언어의 변천은 주로 의미의 변천과 관련하여 다루어졌는데, '被'구문의 역사적 변천 역시 의미 변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일반적으로 은유가 문법화의 관건이라고 보는데, 이런 의미변천의 주요한 기제가 은유라고 보고 '被'구문을 분석한 견해가 있다(김윤정 2008).

10) 필자는 현대중국어 '被'구문에서 '被'의 품사를 최소주의 기능범주(functional category)의 일종인 경동사(light verb)로 분류하였다. '被'는 본고 2장의 설명처럼 내용어에서 기능어로 변화하는 문법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피동표지가 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 '被'는 사건 의미(eventualities)를 나타내는 경동사가 되어 경동사구 패각구조(light verb phrase shell, vP shell)를 형성하게 된다. 어휘분해(lexical decomposition) 이론에 의해, 사건 의미를 나타내는 경동사 '被'와 기본 어휘의미를 나타내는 어근 'VP'의 두 개의 부분으로 분해되고, 경험주는 경동사 EXPERIENCE의 주어가 된다. 즉, 어근은 동사구 VP로 구성되고, 동사구 VP 상위에는 사건의미를 나타내는 경동사구 vP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인순(2010)을 참고하시오.

‘被’의 어원 의미는 ‘이불’인데, ‘被’가 동사로 파생된 후 ‘이불을 덮다’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고 이로부터 ‘미치다’라는 의미가 생성되며 여기서 다시 수동 의미를 나타내는 표지로 문법화된다고 본다. 즉 이렇게 해서 ‘被’의 의미 영역이 사물 혹은 동작을 나타내는 물리적인 세계에서 ‘당하다’라는 추상적 개념 세계로 전이되는 은유가 발생하게 된다. ‘이불’과 ‘수동’의 일부 개념이 인간의 정신세계 속에서 인접해 있는데 사람들이 이 두 개념을 연결시킴으로써 개념의 영역 이동이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8) ‘被’의 개념 영역 전이

이불>덮다 → 당하다

[물리적인 세계] → [추상적인 개념 세계]

(김윤정 2008:214)

은유는 의미변천의 원동력으로 간주되어 의미변천과정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 가설이다. 이것은 또한 의미상의 변천이 범주(category)상의 변천을 수반하는 문법화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분석은 의미변화가 통사변화를 자연스럽게 수반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통사변화의 원인을 정확히 제공해줄 수 없다. 즉 ‘被’구문의 문법화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되는 행위주의 위치 변화, 즉 행위주가 왜 동사에 후행하는 위치에서 동사에 선행하는 위치로 이동하게 되는지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지 못한다.

張洪明(2005:201)은 은유를 통해 ‘被’구문의 문법화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아래의 (9)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 근원영역(source)

澤 被 申生

주제 장소

목표영역(target)

申生 被 澤

장소 주제

위 (9)에서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의 주제와 장소는 각각 ‘澤’과 ‘申生’으로 서

로 완전히 같다. 그러나 ‘澤’과 ‘申生’의 어순변화만으로도 ‘被’의 의미가 근원영역의 ‘덮다’에서 목표영역의 ‘입다(당하다)’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의미변천이 어순변화에 의해 야기될 수 있다면, 은유 외의 다른 기제에 의해서도 ‘被’의 의미변천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3.2 통사적 기제

‘被’구문의 문법화에 대한 기존연구에서는 문법화 기제인 은유 외에 유추¹¹⁾가 사용되었다(王力 1980/2002, Peyraube 1989). ‘被’가 출현하기 전에 이미 ‘爲’나 ‘見’을 이용한 피동문이 존재하였으나, 후에 모두 ‘被’구문으로 그 형식이 대체된다. 이를 통해 ‘被’가 발생 이후 독자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爲’나 ‘見’에 의해 유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被+V’ 형식은 후기 상고중국어에서부터 일반적으로 사용된 ‘V₁見+V₂’ 형식에서 유추된 것으로 ‘被’는 ‘見’과 같은 동사의 기능을 한다. ‘被+행위주+V’ 형식은 후기 상고중국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고 漢나라와 전기 중고중국어에서도 줄곧 사용된 ‘爲+행위주+V’ 형식에서 유추된다. 유추는 어순변화의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이다.¹²⁾ ‘被’구문은 ‘爲’와 ‘見’구문에서의 형태-통사적인 유추를 통해 형식면에서 변화를 이루게 되고, 최종적으로 행위주를 취하는 피동문을 형성하게 되어 현대 중국어 ‘被’구문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학자들이 이렇게 유추라는 기제를 생각하게 된 동기는 바로 ‘於’, ‘爲’, ‘見’과 같은 피동표지가 이미 존재하여 활발하게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被’라는

11) 유추란 어떤 언어 형태가 의미나 기능, 음성적으로 비슷한 언어 형태에 동화하여 변하거나 또는 그런 형태가 새로 생겨나도록 하는 심리적인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다(이성하 1998/2006:227).

12) Heine & Reh(1984:28)에 따르면, 유추는 어순변화의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유추가 형태-통사적인 변화에서 어순변화에 관여한다는 것은 Dik(1978:174)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Dik(1978)에 따르면 유추는 기능상의 특징이 같은 문장 성분을 문장 구조 상의 위치가 같은 곳에 배치하는데 사용하는 심리적인 언어 전략이다. 즉 유추는 기능과 위치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데 사용된다(이성하 1998/2006:230).

피동표지가 그 기능을 대체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고찰하는 데서 시작된다. 상고중국어에서 주로 사용된 '見'과 '爲'의 중요한 차이는 바로 행위주를 취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있다. 따라서, 언어의 경제성 원칙에 의해 행위주를 취하거나 취하지 않는 두 가지 기능을 겸할 수 있는 한 가지 피동표지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被'의 역할을 확대시킨 것이다. 즉 '被'는 처음에는 '見'의 기능만 지니고 있다가, 후에 다시 '爲'의 기능을 겸비하게 되고, 결국 두 개의 기능이 양립할 수 있게 되어 '見'과 '爲'를 대체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被'구문은 왜 '見'구문에서 먼저 유추되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見'구문과 '爲'구문은 상고중국어에서부터 거의 동시에 존재하였고 둘 다 '被'구문보다 먼저 출현한 피동형식이기 때문에, '被'구문은 '見'구문이 아닌 '爲'구문의 형식에서 먼저 유추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데 '被'구문이 왜 먼저 '見'구문의 형식을 취한 후 다시 '爲'구문의 형식을 취하는 역사적 경로를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기에는 기존 학자들의 설명이 부족하다.¹³⁾ 위에서 언급하였다시피 '見'구문과 '爲'구문의 뚜렷한 차이는 행위주 유무에 있다. '爲'는 초기에는 행위주를 취하지 않고 바로 동사를 취하다가, 곧 행위주를 취하게 된다. 그렇다면 '被'구문은 '見'구문에서 '爲'구문을 거친 형식상의 유추가 아니라, 오로지 '爲'구문의 형식에서 유추되었다고 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爲'구문은 실제로 '被'구문과 유사한 변천경로를 걸었다. 또한 실제로 '被'구문이 '爲'구문에서 유추되었다고 주장하는 논문도 이미 발표되었다(唐鈺明 2002b:275).¹⁴⁾ 따라서 기존 학자들이 '被'구문이 '見'과 '爲'구문에서 유추되었다고 보는 의견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被'구문의 문법화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바로 '被' 뒤에 행위

13) P. A. Bennett(1981:77-78)은 그의 논문에서 V_1 被+ V_2 가 V_1 見+ V_2 를 대체했고, 그 후 V_1 見+ V_2 는 사라지게 되었다고 주장한 Tai(1976:299-300)의 의견에 반대하였다. Bennett은 V_1 見+ V_2 형식이 《世說新語》에 여전히 출현하기 때문에 V_1 被+ V_2 형식이 출현한 이후 사라졌다고 말할 수 없으며, 또한 Tai는 '被'가 왜 '見'을 대체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14) 唐鈺明(2002b:275)은 '被'자와 '爲'자의 성질이 서로 같아서, 동사 앞에서 조사(助詞)로 쓰일 수도 있고, 전치사가 되어 행위주를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被'구문의 변천과정은 '爲'구문과 매우 유사하다고 하였다.

주가 출현하게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있다. 왜냐하면 서론에서도 이미 언급하였다시피 행위주 출현을 전후로 하여 ‘被’의 품사가 내용어인 동사에서 기능어인 피동표지로의 큰 범주이동을 겪기 때문이다. 이상의 설명은 ‘被’구문의 통시적 변천을 잘 설명하고 있지만, 왜 행위주가 동사에 후행하는 성분에서 동사에 선행하는 성분으로의 변천을 겪게 되는지에 대한 원인을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필자는 3.3에서 V나 VP만을 취하던 ‘被’구문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 행위주 NP를 취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러한 분석이 ‘被’구문의 문법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3.3 음운적 기제

문법화 현상은 의미적, 통사적, 음운적 변화들이 모두 포함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3.1과 3.2를 통해 ‘被’구문의 문법화를 초래하는 기제가 무엇인지를 의미적, 통사적 기제인 은유와 유추에 착안하여 살펴보았다. 하지만 ‘被’구문의 문법화에는 은유나 유추로는 해결되지 않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행위주의 출현위치가 변화한 것이다. 즉 이러한 기제들로는 ‘被’구문의 문법화에 있어서 중요한 원인이 되는 행위주 출현 동기를 적절히 설명할 수 없었다. 필자는 ‘被’구문이 은유와 유추에 의해 문법화의 큰 흐름을 이루어 나간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런 기제들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음운적 기제를 함께 다루어 이론적 근거를 보완해 보고자 한다.

행위주가 출현하지 않는 ‘被+V’ 형식이 행위주가 출현하는 ‘被+NP₂+VP’ 형식보다 먼저 출현하였음을 2장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被+V’에서 ‘被’ 뒤에 출현하는 V는 처음에는 일음절 동사(monosyllabic verb)였다. 이 시기의 ‘被+V’는 복합동사(compound verb)의 형식으로 출현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Feng 1998:44).

- (10) 被戮 살해당하다.
 被辱 모욕당하다.
 被侵 침략당하다.

이 복합동사가 행위주를 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예문 (1)처럼 전치사구인 ‘於+NP₂’가 ‘被+V’ 뒤에 사용된다. 왜냐하면 ‘被+V’형식은 복합어이기 때문에 행위주가 ‘被’와 ‘V’ 사이에 출현할 수 없고, 대신에 간접논항(indirect argument)의 형식인 ‘於+NP₂’로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漢나라부터 점차 이음절 동사(dissyllabic verb)가 많아지게 되고, ‘被+V’형식에서의 ‘V’는 ‘VP’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음절화에 의해 복합동사 ‘被+V’가 탄생되고, 西漢시대에 ‘被+V’ 뿐만 아니라 ‘VV’ 복합어도 생산된다. 즉 다수의 일반적인 이음절 동사들이 이제 이음절 대응물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Feng 1997a, Feng 1998:57-58 재인용). 이것은 특별히 東漢시대에 발생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 | | |
|------------|-------|-------|
| (11) a. 被謗 | 비방당하다 | (史記) |
| | 被毀謗 | (論衡) |
| b. 被刑 | 처형당하다 | (韓非子) |
| | 被刑戮 | (論衡) |
| c. 被戮 | 처형당하다 | (史記) |
| | 被刑戮 | (史記) |

결과적으로, ‘被+V’ 형식은 새로운 ‘被+VV’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게 된다. 또한 ‘被+V’ 형식은 ‘被+VP’로 변천된 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휘적 被구문(lexical passive)의 형식으로 화석화되어 현재까지도 남아있다(이지현 2005, Huang 2009 등).

이러한 이음절 동사의 출현으로 인해 ‘被+V’는 ‘被+VP’로의 발전을 이루게 된다. 무엇보다 東漢시대에 ‘被’의 보충어 ‘V’앞에 부사(adverb)가 사용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被’의 보충어인 ‘Adv+V’가 독립적인 VP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하게 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Feng 1998:45).

- (12) a. 橫被暴誅。(吳越春秋·闔閭內傳)
이유없이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다.
b. 多被陰害。(太平經·樂怒吉凶訣)
자주 모함을 당하였다.

‘被+V’에서 ‘被+VP’로의 변천은 ‘被’구문의 역사적 변천에 있어서 중요한 현상 중의 하나이다. 일음절 동사 ‘V’는 ‘被’와 결합하여 복합동사가 되지만, 이음절 동사, 특히 ‘Adv+V’는 ‘VP’ 즉 술어(predicate)의 자격을 얻게 되어 논항을 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즉 ‘VP’는 주어와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정보와 더불어 이들 필요한 요소 간의 관계를 기술하게 된다. 따라서 논항을 취할 수 있게 된 술어는 ‘被+V’에서 간접논항으로 취하는 행위주를 직접논항(direct argument)으로 취할 수 있게 된다.¹⁵⁾ 이때 NP는 주어와 목적어 중 하나의 위치를 선택하는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데, ‘被’구문에서 NP₂가 VP의 왼쪽에 출현하게 되는 이유는 아래와 같은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의미역할당불변 가설(Uniformity of Theta Assignment Hypothesis)에 의한 것이다. 어휘항목 간의 동일한 의미역관계는 D-구조에서 동일한 구조관계로 표시된다. D-구조에의 투사에 대한 의미역할당불변 가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외재논항(행위주)은 주어 자리에 투사된다”이고 둘째, “직접논항(피형체)은 목적어 자리에 투사된다”이다. 따라서 행위주인 외재논항 NP₂는 주어자리에 출현하게 된다.

둘째, 동사구 내 주어 가설(VP-internal Subject Hypothesis)에 의한 것이다. 즉 주어는 동사구 내에, 정확히는 동사구의 지정어(Specifier) 위치에서 생성된 후 격부여 혹은 일치요청에 따라 IP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하게 된다.

15) 이것은 확대투사원리(Extended Projection Principle)에 의해 뒷받침 될 수 있다. 확대투사원리란 “절의 주어는 S-구조에서 존재해야 한다”는 원리로 술어는 언제나 서술의 대상이 되는 요소 즉, 주어를 필요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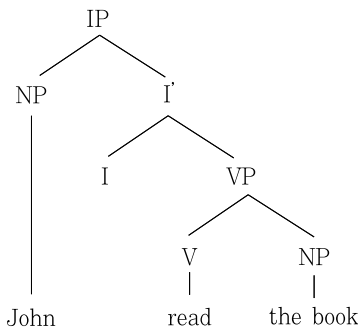
셋째, 어순대응공리(Linear Correspondence Axiom)에 따르면(Kayne 1994), 행위주 NP는 Spec VP 위치, 즉 VP의 왼쪽에 출현해야 한다. 따라서 행위주 NP가 만약 출현한다면 [被 VP] 와 같은 구형식의 피동(phrasal passives)에서 VP 앞에 출현하게 되어 [被 [NP V]] 구조를 야기하게 된다 (Feng 1998:56).

행위주 NP는 위의 세 가지 근거에 의해 VP의 왼쪽 위치, 즉 ‘被’의 바로 뒤에 출현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被+NP₂+VP’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행위주는 의미역 계층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 즉 외재논항(external argument)으로 실현되는데, 외재논항이란 Williams(1980, 1981a)에 의해 처음으로 구분된 것으로 원래 논항을 취하는 술어의 최대투사 범주 밖에서 구현되는 논항을 지칭하는 것이다. 즉 외재논항은 이 논항을 취하는 동사구 밖에서 실현되는 주어와 연결된다. 또한 외재적 NP논항은 술어이론에서 주장된 것처럼 동사의 최대투사와 함께 상호간에 성분통어(C-command)관계에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3) a. John read the book.

b.



(정태구 2001/2002:16)

www.kci.go.kr

위 (13)에서 ‘John’이 바로 동사구 ‘read the book’의 외재논항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被’구문에서 [被 VP(Adv V)]라는 이음절 ‘VP’가 출현한 후에, ‘VP’는 보편문법의 원리들에 의해 ‘NP’를 필요로 하게 되며, 이 ‘NP’는 최종적으로 ‘VP’의 외재논항 형식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논리과정을 통해 아래 예문 (14)와 같은 장거리 被구문인 [被 IP(NP VP)]가 출현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예문(15)의 동사에 후행하는 사격 논항 (oblique argument)인 행위주 NP, 즉 NP2가 東漢시대 말에 이르러 예문 (14)와 같이 동사에 선행하는 핵심 논항(core argument)이 되어 ‘被’는 하나의 논항인 종속절 IP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¹⁶⁾ 예문 (14)와 (15)는 다음과 같다.

- (14) 五月二十日, 臣被尙書召問。(蔡邕·被收時表)
오월 이십일, 신은 상서에 의해 소환되었습니다. (예문(2)재인용)
- (15) 萬乘之國, 被圍於趙。(戰國策·齊策)
萬乘의 대국이 趙나라에서 포위당했다. (예문(1)재인용)

그렇다면 NP2에 행위주 의미역이 이미 출현하기 때문에 ‘被’구문 전체의 주어인 NP1의 의미역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다시 제기된다. Jackendoff (1972)는 수동문 즉 피동문에서 by구의 의미역과 표층구조 주어의 의미역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음을 관찰했다. 즉 피동문의 by구에는 항상 행위주가 나타나고 피동문의 표층구조 주어에는 행위주가 아닌 다른 의미역이 나타나고 있어 의미역 간에 어떤 계층이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역 간의 계층을 의미역 계층(Thematic Hierarchy)¹⁷⁾이라고 한다(정태구 2001/

16) Feng(1998:56)은 ‘被’구문의 통시적인 발전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 기원전 400년경 (i) [被 NP]
기원전 300년경 (ii) [被 N/V]운율어(Prosodic Word)/복합어(Compound)
(iii) [被-V] PP
기원전 100년경 (iv) [被 VV]
기원후 100년경 (v) [被 VP(Adv V)]
기원후 200년경 (vi) [被 IP(NP V)]

17) 학자들이 구분한 의미역계층은 조금씩 다른데, 이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2002:31). 의미역 계층은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일반적으로 행위주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심리경험주, 그리고 그 다음으로 피험체가 온다는 데에 일치한다. ‘被’구문의 NP₁은 술어인 ‘被+NP₂+VP’가 기술하는 정신적, 심리적 상태를 겪는 대상인 심리경험주(Experiencer)이다. 이를 통해 중국어 ‘被’구문 역시 영어 피동문과 유사한 의미역 계층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NP₁(심리경험주)+被+NP₂(행위주)+VP’를 선형구조 상으로 살펴보면, 주어 위치에 행위주보다 의미역계층이 낮은 심리경험주가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구조는 의미역계층에 위배된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被’구문의 주어는 기저생성(base-generated)되는 것으로 본다.¹⁸⁾ 기저생성된 주어는 술어인 ‘被+NP₂+VP’으로부터 심리경험주라는 별도의 의미역을 할당받게 되는 것이다.

결국 ‘被’구문은 현대중국어 장거리 被구문의 전형적인 형식인 ‘NP₁(심리경험주)+被+NP₂(행위주)+VP’의 구조를 형성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被’는 ‘NP₂(행위주)+VP’를 취하는 피동표지로 문법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의미역 계층(Thematic Hierarchy)

- a. <행위주, 장소/근원점/목표, 피험체> (Jackendoff 1972)
 - b. <행위주, 피험체, 목표, 사격(obliques)> (Larson 1988)
 - c. <행위주, 피험체, 목표/수혜자/장소> (M. Baker 1989)
 - d. <행위주, 수혜자, 수취자/심리경험주, 도구, 피험체/피동체, 장소> (Bresnan & Kanerva 1989)
 - e. <행위주, 심리경험주, 장소/근원점/목표, 피험체> (Grimshaw 1990)
- (정태구 2001/2002:32)

18) ‘被’구문의 주어가 기저생성된다는 가설은 주어 지향 부사(subject-oriented adverb)에 의해서도 지지를 얻는다. 주어 지향 부사는 선택적 제약을 부과하여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에 대해 서술한다. ‘故意’와 같은 주어 지향 부사(subject-oriented adverb)의 출현을 통해 아래 예문 (1), (2)의 주어가 명사구 혼적으로부터 부여받은 순수한 피험체 혹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피동문의 주어는 그 자체의 의미역을 스스로 부여받는 행위주 혹은 경험주이다(Huang 2009).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张三故意被打了。
장삼은 고의로 맞았다.
- (2) 张三故意被李四打了。
장삼은 고의로 이사에게 맞았다.

주축은 바로 '被+V'에서 '被+VP'로의 음운적 변화에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행위주 위치 이동은 은유와 유추로 설명되어온 '被'구문의 문법화를 좀 더 설득력있게 뒷받침해줄 수 있다고 본다.

4. 맺는 말

지금까지 '被'구문의 문법화과정을 살펴보았다. '被'구문은 출현 이후 점진적 발전단계를 거친 후 唐나라 이후부터는 중국어 피동문의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被'구문이 존재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문법화 기제들의 유기적 작용에 의한 문법화 과정이 존재하였다. 먼저 '被'는 명사에서 동사를 거쳐 피동표지로 이르는 장구한 시간에 걸친 의미변천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은유라는 기제를 통해 설명되었다. 또한 '被'구문은 先秦시기부터 존재한 '爲'구문과 '見'구문에서의 유추를 통해 형태상의 변화를 이루게 된다. 하지만, 은유와 유추는 '被'구문이 문법화를 이루어가는 큰 흐름을 보여주지만, 문법화의 가장 중요한 동기인 행위주 NP₂가 동사에 후행하는 위치에서 동사에 선행하는 위치로 변화된 원인을 설명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필자는 그 변화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被'구문의 음운적 기제에 착안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被+V'에서 '被+VP'로의 변화가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일음절 동사인 'V'에서 이음절 동사인 'VP'로의 변화는 결국 'NP'라는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VP'는 의미역할당불변 가설, 동사구내주어 가설, 어순대응공리와 같은 보편문법 원리들에 의해 그 왼쪽에 'NP'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NP₂+VP'가 형성되며, 결국 'NP₁(심리경험주)+被+NP₂(행위주)+VP'라는 현대중국어의 전형적인 '被'구문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 참고 문헌 >

- 김윤정(2008), <‘被’의 문법화 연구>, 《언어과학연구》 46.
- 김인순(2010), <현대중국어 비대격구문과 피동구문의 목적어 출현현상에 대한 소고—“王冕死了父親”과 “張三被殺了父親”을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27.
- 이성하(1998/2006), 《문법화의 이해》, 서울:한국문화사.
- 이지현(2005), 《현대중국어 被구문의 통사구조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태구(2001/2002), 《논항구조와 영어통사론》, 서울:한국문화사.
- 최재영(2003), <“被”의 품사 문제 再考>, 《중국언어연구》 17.
- 蔣紹愚(2005), <近代漢語的被動式>, 《近代漢語研究概要》, 北京:北京大學出版社.
- 蔣紹愚·曹廣順 主編(2005), <被動句>, 《近代漢語語法史研究綜述》, 北京:商務印書館.
- 唐鈺明(2002a), <論先秦漢語被動式的發展>, 《著名中年語言學家自選集:唐鈺明卷》, 安徽:安徽教育出版社.
- (2002b), <漢魏六朝被動式略論>, 《著名中年語言學家自選集:唐鈺明卷》, 安徽:安徽教育出版社.
- 王力(1980/2002), 《漢語史稿》, 北京:中華書局.
- 張洪明 著·宋晨清 譯(2005), <漢語被的語法化>, 《漢語語法化研究》, 北京:商務印書館.
- Charles N. Li & Sandra A. Thompson(1974), An Explanation of Word Order Change SVO→SOV, *Foundations of Language* 12, 201-214.
- C.-T. James Huang(2009), ‘Passive’, in C.-T. James Huang et al.(ed), *The Syntax of Chine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shimoto, Mantaro(1987), Hanyu beidongshi de lishi quyu fazhan [The historical and geographical development of Chinese passive constructions], *Zhongguo Yuwen* 196:36-49.
- Paul A. Bennett(1981), The Evolution of Passive and Disposal Sentences,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9, 61-90.
- Paul J. Hopper·Elizabeth Closs Traugott(1993). 김은일·박기성·채영희 옮김 (1999), 《문법화》, 서울: 한신문화사.
- Peyraube, Alain(1989), History of the Passive Constructions in Chinese until the 10th Century,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17, 335-372.

Shengli Feng(1998), Prosodically Motivated Passive Bei Constructions in Classical Chinese, *The 1998 Yearbook of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Finland*, 41-68.

Tai, J.H.-Y.(1976), On the Change from SVO to SOV in Chinese, Papers from the Parasession on Diachronic Syntax, *Chicago Linguistics Society*, 291-304.

Yin, Hui(2004), Grammaticalization of Mandarin Transfer Verbs Gěi and Bèi as Passive Markers. *Actes du congrès annuel de l'Association canadienne de linguistique*.

< 中文提要 >

“被”字句大致可分為長被字句和短被字句，它們的主要區別在於施事存在與否。初期的形式語法認為短被字句是通過長被字句的施事省略而產生的。但歷來就有短被字句，長被字句是後期才產生的，因此應該把它們看作是兩種不同的形式。但上古漢語中也有表示施事的方式，這就是在“被+V”後面加上介詞短語“於+NP₂”。“被”字句的語法化經常用隱喻與類化來解釋，但這兩種方法無法解釋從“被+V+於+NP₂”到“被+NP₂+VP”的歷史演變過程，因此本文試圖用語音機制來進行解釋。“被+V”的單音節“V”變為雙音節“VP”，而“VP”需要“NP”論元，“NP”論元通過“題元角色賦予普遍假設”、“動詞詞組內主語假設”與“線性對應定理”可以出現在VP前面，這就形成了現代漢語“被”字句的典型形式，即“NP₁+被+NP₂+VP”。“被”最終語法化為虛詞。

關鍵詞：被字句，語法化，雙音化，隱喻，類化，擴充的投射原則，題元角色賦予普遍假設，動詞詞組內主語假設，線性對應定理，虛詞。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0.6.30	2010.7.30	2010.8.5	2010.8.10	2010.8.31